



이렇게 쳐 박힌 상태로 홍대 앞에서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왜 그대로일까?

사진은 두어 달쯤 전부터 저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위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다. 문제는 위 트럭과 아래 승용차...

홍대 앞에 저런 흉물스러운 일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대로 방치하고,

관계기관 (일방통행로(도로변))이면서 + 구청의 주차장이면서 + 예술문화공간의 담벼락인) 의 무관심 속에 있다는 것이 홍대를 찾는 수많은 이들에게 괜히 미안해 진다.



위 트럭은 전에도 약 1년 이상 저렇게 차를 세워 두었다. 아니 방치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같은 구역 내 다른 위치에 저렇게 바퀴가 꺾여 쳐 박혀 있었다. 수개월동안 한번도 뺄적없는 그대로 벽쪽으로 쳐박혀 있었

다. 3년 전쯤 저 트럭을 처음보고는 몇 개월이 지나도 빠지 않길래 누가 그냥 버리고 간 것 인줄 알았다. 그래서 나중에 순찰하는 분들이 보고서 치워주겠지 라고 생각했다. 허나 계속 그 자리 차안을 가끔 보면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그래도 주차권은 용케도 끊어 넣는지 차곡차곡 지난주차권들은 쌓여있었다. '이런 무심한 주인을 봤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함부로 남의 일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생각하여 벽에 쳐박혀 방치되어 있는 험한 꼴을 그냥 지나치게 3년이 넘는 것 같다. 지금은 창문도 없어서 주차권을 확인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온전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래 더 오래된 차가 있다. 이 길을 지나치면서 벌써 5년이나 본 노점(?)상 차량이다. 엄연히 주차구역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못하게 되어있겠지만 저 위치에 저렇게 방치해두고 상업의 창고로 사용한지 5년이 넘었다. 처음엔 그저 돈 없는, 펄 곳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 여겨 동정심에 못본척 지나가기 일쑤였다. 하지만 해가 몇 번을 바뀌어도 오히려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여 직원까지 두며 여럿이 그 자리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밤새도록 장사를 한다. 차를 몰고 옆을 지나갈 때면 언덕이라 사람들을 호객하느라 사람들이 옆은 안보고 머뭇거리고 서있는 통에 굉장히 위험하다. 게다가 요즘은 몇 개월 전 공사한 놀이터 울타리 곳곳에 옷과 물품들을 위험하게 걸어두어 공공기물까지 멋대로인 채이다.

홍대앞 놀이터에는 프리마켓이라 하여 구청(?)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휴일 낮시간의 장터로 수입이 없는 몇몇 학교의 학생들이 대기과 심사를 거쳐 허락을 받고 각자 자기의 공예품등 갖가지들을 놓고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다. 허가 내기도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 헌데 지금 저 위치는 프리마켓이 아니다! 그냥 길거리에 불법으로 물건을 갖고 나와 판매하는 좀 잘못된 일 같다. 날로 확장하여 몇 개월 전 설치한 보호 울타리와 공원 가의 기물들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 위 트럭처럼 주차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주차구역 사용자가 없을 때 잠시 약 3시간정도 사용할 수 있는 "방문주차증"이라는 임시 주차(?) 제도를 이상하게 방치함으로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 동네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 서울·경기등 다른 지역이라면 벌써 이기적인 이들에 의하거나 동네를 걱정하는 이들에 의해 없어졌을 일인 것 같다. 난 저들이 주차를 하든 말든 장사를 하든 말든 관심없다. 그냥 좀 깨끗하게 동네를 지켜주었으면 개인의 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홍대앞 이쁜 거리를 저렇게 지저분하게 망쳐지고 싶지 않을 뿐이다.